

전주시, 시내버스 혼잡 노선 '증차 운행'

5월 6일부터 165번·101번 노선 예비 차량 3대 투입... 공공기관 출근·학생 등교 시간대 집중 배차

전주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시내버스 이용자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혼잡 노선에 예비 차량을 탄력적으로 투입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6일 첫 차부터 예비 차량 3대를 활용해 주요 공공기관 경유 노선과 학생들의 통학 노선에 한시적으로 증차 운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권장 분위기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전주시내버스 이용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6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밀집한 전북혁신도시 방면과 학생 이용이 많은 통학 노선의 경우 특정 시간대 승객이 집중되면서 차내 혼잡도가 높아지고 시민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활용 가능한 예비 차량을 혼잡 시간대에 투입해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승객을 분산시켜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증차 대상 노선은 165번 노선과 101번 노선으로, 아침첨두시간대에 집중 배차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6일 첫 차부터 예비 차량 3대를 활용해 주요 공공기관 경유 노선과 학생들의 통학 노선에 한시적으로 증차 운영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전주동물원에서 출발해 △전북대 △중앙시장 △남부시장 △평화동 △삼천동 △전북도청 △전주대 △전북혁신도시를 경유해 이서회차지까지 운행하는 165번 노선에는 예비 차량 2대가 투입된다. 이 노선은 주요 대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청,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를 경유해 출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

시는 기존 오전 7시 9분과 7시 24분 출발 차량 사이인 7시 16분 시간에 차량을 추가 투입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배차간격은 기존 15분에서 7~8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101번 노선에도 예비 차량 1대가 추가 투입된다. 101번 노선은 평화동종점에서 출발해 △성심여중고 △신흥중고 △전주여상 △한일고 △전주지방법원 △월드컵경기장 △여의동, 팔복동을 거쳐 전북대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주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를 경유하는 만큼 등교 시간대에는 학생과 일반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다.

시는 101번 노선의 오전 7시 40분과 8시 5분 출발 차량 사이인 7시 52분 출발 차량을 투입해 기존 25분의 배차간격을 12~13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등교 편의를 높이고, 승객을 분산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근 등교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차량을 활용해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과 시간대에 증차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선별 이용객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서도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쌀' 이 이색 콘텐츠가 된다

전주남부시장 '쌀그머니' 팝업 운영

과거 전국의 쌀 시세를 좌우했던 전주 남부시장이 '쌀'을 주제로 한 이색 콘텐츠 실험에 나선다.

특히 전주남부시장 한복판에서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전시와 체험, 미식이 결합된 복합형 팝업스토어가 펼쳐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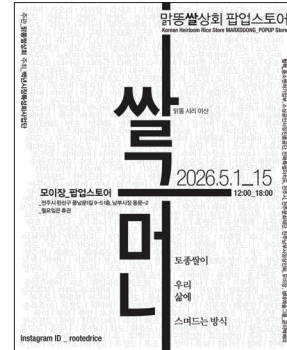
전주 남부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모이자 팝업스토어 존에서 토종쌀 팝업스토어인 '쌀그머니-토종쌀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방식'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백년시장 육성사업인 '남부시장 콘텐츠 리빙랩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판매 중심 공간에서 체험·전시·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다.

지역 브랜드 팜팜쌀상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토종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경험 콘텐츠'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행사장에는 300여 종의 토종벼 볶짚과 100여 종의 토종쌀이 전시돼 관람객이 다양한 쌀 품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권희성 기자



또한 행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사용 페트병을 활용한 '한뼘는 민들기' △감각각으로 쌀을 구분하는 '쌀 이름 짓기' △미니 도장기를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모이자 팝업스토어존에서는 토종쌀과 치유의 식탁, 막걸리 테이스팅, 현미차회 등 미식 프로그램과 쌀 제품 판매도 함께 진행된다.

'전북시민대학 전주캠퍼스' 1학기 수강생 모집

전주시·탄소기업, 노동절 맞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행진다

전주시와 탄소소재 관련 중소기업들이 함께 조성한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대표 김형근, 이하 기금법인)'이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참여기업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기로 했다.

기금법인은 노동절 기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법인에 참여한 4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50명 전원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은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전략 산업인 탄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탄소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 2월 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연금과 4개 참여 중소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전주시 1호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기금법인은 연간 1인당 총 100만 원 수준의 복지 혜택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한 '2026년 전북시민대학 전주캠퍼스'에 참여할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평생학습과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 등 지역 내 주요 대학 및 민간 전문기관(포크리컨설링, 한국평생교육HRD진흥협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학기 교육과정은 시민들의 생애 전환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도약학부 △지역특화학부 △교양학부의 3개 학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생애도약학부에서는 △간선기계(지게차) 운전 실무 △농업기계 정비 기술 실무 △전통장류 제조 실무(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전주대학교) △나만의 자서전 쓰기(전주비전대학교) △50+ 로복지기금이다. 기금법인은 연간 1인당 총 100만 원 수준의 복지 혜택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학부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AI 활용-비이코딩1 △테이블 퍼실리티 테이터 워크숍 △전주 역사문화 스토리텔러과정 △전주 문화 경제학 등이 마련된다.

끝으로 교양학부에서는 스마트폰 기반의 일상생활 속 AI 도구 활용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1학기 교육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각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 장소(각 대학 및 전주시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정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도시관광생학습본부 본부장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어린이날 연휴 동물원 특별 교통 대책 가동

전주시, 임시주차장 확보·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추진

전주시가 5월 황금연휴 기간을 맞아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시는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5월 초 동물원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에는 매년 어린이날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시는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시주차장 확충 △교통 통제 △대중교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기로 했다.

먼저 시는 방문객 주차 편의를 위해 기존 동물원(828면)과 덕진체련공원

(114면), 길공원(150면) 외에도 전북대학교(2000면)와 유아중학교(200면), 북초등학교(30면)를 임시주차장으로 추가 확보해 총 6개소 3322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주요 진입로에 경찰과 교통봉사대 등 총 122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안내관과 현수막을 설치해 신속한 주차 안내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전주동물원 진입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어린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대

중점(차고지)을 출발해 전북대분수대(건지광장)와 실내배드민턴장, 동물원, 호성주공사거리, 호성엘지동아아파트, 유아중학교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며, 총 8대가 10분 간격으로 투입된다. /권희성 기자

이를 통해 임시주차장 이용 차량의 동물원 인근 집중을 분산시키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전반적인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휴 기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물원 방면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한다.

구체적으로 79번 버스는 1일 54회, 165번 버스는 1일 112회까지 증회해 동물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호성주공사거리에서 동물원 방향 구간은 일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셔틀버스와 시내버스는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총 212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차 안내와 보행자 안전관리,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